

**신공항, 명칭 확정  
서울·인천공항으로**

영종신공항의 이름이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확정됐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공항의 이름을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짓기로 하고 인천시등 관계기관간 협의의 거친후 이번달중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키로 하였다.

건교부는 서울·김포국제공항이 김포국제공항으로 불리는 것처럼 서울·인천국제공항의 약칭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정해 그동안 인천지역주민들이 정부에 요구했던 의사를 수용키로 하였다.

한편, 그동안 신공항이름으로 거론되었던 영종국제공항은 외국인이 발음하기 어려운데다 국제적으로 생소한 이름이라는 점에서 배제되었으며 새서울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세종국제공항 등의 명칭이 거론되었다가 모두 탈락되었다.

**서울-빈간 여객기 취항  
주 4회 증편키로**

오는 4월부터 서울에서 오스트리아의 빈을 운항하는 여객기가 현재 주 2회에서 4회까지 늘어나고 기종 제한도 없어진다.

또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오스트리아항공에 한해 단수제로 지정된 지정 항공사수가 양측 모두 복수제로 변경돼 여객수요가 1년에 21만

명이 넘을 경우 대한항공도 오스트리아 취항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韓·오스트리아간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서울-빈-브뤼셀 노선을 B767 여객기로 주 2회 운항하고 있다.

이밖에 화물편에 있어서는 우리측이 원할 경우 운항회수의 제한없이 운항할 수 있게 돼 동구권의 항공화물 운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외무부 관계자 및 항공사 관계자들은 지난달 11일과 12일 이틀동안 빈에서 오스트리아측 관계자들과 항공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인덕산 정상 일부 깎기로  
포항,항공기 이착륙 방해해**

포항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에 장애가 됐던 인덕산의 정상이 깎인다.

한국공항공단 포항지사는 "인덕산때문에 그동안 포항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진입각도가 너무 커 위험이 상존해왔다"며 "정상일부를 깎아 항공기 진입 각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항공단측은 최근 인덕산 절취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발 966m인 산높이를 30m가량 깎아 항공기의 이착륙 진입 각도를 현재 4.3도에서 3도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아놓고 있다.

이에따라 공항공단측은 사업지구 내 토지매입과 공사비 등 33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97년까지 인덕산 해발고도를 낮추는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포항공항은 지난 86년 국내선 여객기가 처음 취항한 이래 하루 포항~서울 왕복 11편과 포항~제주 왕복 1편이 운항중이다.

**독일,안전결함 항공사  
일방적 취항금지 경고**

독일은 안전상 결함이 있는 항공사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자국내 취항금지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경고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마티아스 비스만 교통부장관은 이날 유럽연합(EU) 교통장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공기 운항안전에 관한 EU 규정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이 통신은 전했다.

독일측은 이와관련, 美연방 운항관리국(FAA)이 취하고 있는 항공안전 감시체제를 검토, EU 공통의 안전규정을 채택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AA는 전세계 항공사의 정비 및 승무원 교육훈련, 시설안전상황등을 연례적으로 점검, 불합격 항공사들에 대해 미국내 공항 이착륙금지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독일당국은 최근 '독일인 관광객을 태운 터키전세기가 카리브해에서 추락, 1백89명 모두가 숨지는 항공참사가 발생한 이후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운항을 하고 있는 군소

항공사에 대한 규제방안을 모색해 왔다.

사고를 낸 비르겐항공사는 FAA의 미국내 운항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라있었으나 독일을 비롯, EU권내에서는 영업을 계속해왔다.

**美·獨 항공자유화 원칙적으로 합의**

미국과 독일의 항공자유화협상이 타결국면에 들어갔다.

'오픈 스카이'정책을 표방, 운임과 운항권의 전면자유화를 내세우는 미국측 주장에 대해 독일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국은 이같은 원칙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실무협의회에서 협정문서작성에 들어갔다.

차유화의 대상은 항공운임, 양국의 이륙 및 도착지점, 경유지점의 선택, 운항의 빈도, 기체의 좌석수, 전세기 운항 등이다.

이같은 내용의 협상타결에 따라 4월경에 양국간 새로운 항공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서는 유럽 최대의 교섭대상국가인 독일과의 회담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현재 일본과 씨름하고 있는 항공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中, 항공산업에 외국인투자 허용**

중국정부는 국내선 항공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들에 대해 국내선 업체에 25% 이내에서의 자본참여를 허용키로했다.

중국민항총국(CAAC)는 우선 시험조치로 海南島의 하이난 항공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참여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중국민항총국의 沈元康 부국장은 중국기업들이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기업의 경영지배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합작에 양측이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9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째인 올해에 약 10억8천만달러를 시설확충과 기술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9개의 신공항이 문을 연 지난해 보다도 30%이상 증가된 예산이다.

중국정부는 특히 북경공항 확장과 상해, 광주의 신공항 건설에 신경을 쓰고 있다.

상해공항은 앞으로 1백억달러를 들여 3개의 활주로를 갖는 공항으로 완공해 연간 5천만명의 승객과 3백만톤의 화물을 처리하게된다.

중국정부는 앞으로 5개년간 32개의 주요 공항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외국 자본 유치가 불가피하

다고 중국민항관계자가 밝혔다.

**항공 운항업에 진출 그레이하운드, 캐나다사**

장거리 고속버스의 우수회사인 그레이하운드 라인스 오브 캐나다사는 그레이 하운드 에어라는 이름으로 항공기 운항 서비스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추진중에 있다고 항공운항 정보소식통이 전하고 있다.

운항업 경영 방식은 그레이 하운드가 항공기를 사서 기체를 소유하고 운항은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캐나다내 다른 업체가 맡을 것이라고 한다. 동사는 항공운임을 버스노선 운임과 경쟁할만한 선에서 정할 것이라고 해 주목되고 있다.

**중국사천항공 A320 37기도입 기존기와 교체**

중국의 성도(成都)를 기반으로 하는 사천항공(四川)은 처음으로 서방측 항공기인 A320 3대를 리스도 도입해 지금까지 사용해 온 Y-7-100(러시아의 An-24를 기초로한 중국 독자 개발기)와 Tu-154M기와 교체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 사천항공이 도입할 A320